

마쓰다이라고 곤겐 축제(봄 축제)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의 '곤겐 축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의 생애를 기념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는 1603년부터 1867년까지 일본을 통치한 도쿠가와 막부의 창시자였습니다. 또한, 이에야스는 현재의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가 있는 땅에 저택을 가지고 있던 마쓰다이라 가문의 후손입니다. 도쇼다이곤겐(위대한 동쪽의 빛)이라는 신도의 신으로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에 모셔져 있습니다. 곤겐 축제는 마쓰다이라고에서 가장 오래된 축제로 에도 시대(1603~1867)부터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어떤 형식으로 행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 축제는 이에야스의 기일인 4월 17일 직전 주말에 열립니다. 토요일 저녁,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의 신관이 신사의 뒤편에 있는 '산탕의 우물'에서 신수를 퍼올려 신들에게 바칩니다. 이 물은 대대로 마쓰다이라 가문에서 태어난 갓난아기의 첫 목욕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북과 춤이 펼쳐지며, 데즈쓰 불꽃놀이가 밤을 물들입니다. 아이치현의 축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데즈쓰는 대나무 통에 밧줄을 감고 화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높이 10m까지 불꽃을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전장의 신호로 사용되었던 것에서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는 이에야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하는 신여(神輿, 신을 모시는 가마)가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에서 언덕길을 올라가 고계쓰인 절까지 운반됩니다. 이 절은 쇼군의 조상이 잠든 마쓰다이라 가문의 보리사입니다. 행렬 참가자는 당시 의상을 입고 절에 들어가서 마쓰다이라의 묘지를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 후 신여는 마쓰다이라 도쇼구 신사로 되돌아가고 축제는 끝납니다.